

1 | 전화기자판 한글배열 표준화

전화기자판 표준화를 위한 시도

전화기자판 한글배열 표준화란 0~9까지의 숫자와 *, #로 표시되는 4×3 배열의 전화기 자판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효율적으로 배열하여 휴대전화, 유무선 전화기, 팩시밀리, PDA 등 숫자 자판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한글과 숫자 자판을 사용하는 모든 정보통신기기의 자판을 한 가지 방식으로 통일할 경우 사용자는 서로 다른 체제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뿐더러, 생산자는 서로 다른 체제를 생산하고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 같은 필요에 따라 추진된 전화기자판 한글배열 표준화는 1995년부터 TTA에서 표준화과제로 채택되면서 추진되었다. 이후 1998년 5월, 4건의 표준시안 최종안을 토대로 지적재산권 협상방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당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상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준화 추진은 중단되고 말았다.

하지만 표준화에 실패했다고 표준화의 장점과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동전화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자 전화기자판 한글

배열 표준화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게 되었다. 이동전화를 생산하는 업체가 각기 서로 다른 자판구조를 선택하면서 소비자의 불편은 물론이고, 전화기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납품하는 회사에 따라 생산라인의 규격을 달리해야만 했다.

전화기자판 한글배열 표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무선 인터넷포럼을 통해 다시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때 역시 서로의 입장이 달라 합의도출에 실패하게 된다.

실타래처럼 꼬인 입장의 차이

이렇듯 표준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요인은 크게 한글자판과 관련된 지나치게 많은 특허권과 이권의 대립 때문이었다. 당시 자판배열, 한글입력, 초성의 사용 등 전화기자판과 관련된 특허등록만 400여건이 넘어 이들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표준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특허권을 둘러싼 이해당사자에는 관련 업체뿐만 아니라 다수의 개인들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들이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는 것 역시 풀기 어려운 과제였다. 만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가지 방식으로 표준을 추진하더라도, 해당 표준에서 배제된

이해당사자들의 민원제기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단말기 제조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자판 통일에 대한 시장요구도 점차 가라앉게 되었다. 한편에서는 오히려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만연하였고, 시장성이 없는 표준 개발은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에 점차 힘이 실리게 되었다. 여기에 현실적인 문제로 연구위원회 운영이 비전문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면서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상황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전문가들도 찾기 힘든 상태가 되었다.

심지어 기본적으로 표준은 공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적, 전략적인 이유를 들며 비공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마저 제기되면서 최종 결정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한계를 맞게 된 것이다.

끝내 풀지 못한 숙제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전화기자판 한글배열 표준화에 대한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5년 9월 22일 TTA에서 정보통신

부와 기술표준원 공동으로 표준화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TTA 주관으로 삼성을 비롯한 사업자와 개발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는 초성배열에 대한 표준화 추진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당시 SKT를 비롯한 사업자의 경우 표준화를 절실히 원했으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조업체에서는 표준화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SKT는 사업자들 간 표준화 필요성에 대해 사전 협의한 바 있었으며, 참석치 못한 LGT, KTF 등 타 사업자들 또한 표준화를 찬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개발자들은 대체로 표준화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본인의 기술을 표준화시킬 것에 연연해 하지 않는 개발자와 자판표준화가 됨으로써 부가적인 이익을 기대하는 몇몇 개발자만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공청회는 결국 현재 나와 있는 다양한 기술들 중 하나의 표준을 채택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 표준화에 대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분분한 의견만 남긴 채 끝이 났다.

이어 2005년 9월 27일에는 TTA, 정보통신부, 기술표준원 담당자 협의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전화기자판 한글배열 표준이 산업자원부(KS), 정보통신부(KICS) 공통표준으로 나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으며, 기술표준원에서의 설문조사 및 TTA, 정보통신부에서의 사전 검토와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예산계획, 표준화 추진방안 등을 수립하고, 상호 협력 및 의견교류를 통해 공통의 안으로 표준화를 추진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 표준화 작업환경과 변화된 상황이 없어 결국 표준화 추진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말았다.

